

최근 4년간 명절기간과 평상시 교통사고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raffic Accident between the National Holidays and Normal Times for the Last 4 Years



김종현



유진화

I. 서론

해마다 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동안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각 관련기관은 매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4년('07년-'10년)간¹⁾ 명절인 설과 추석연휴의 이동추이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명절연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설연휴와 추석연휴 이동현황

1. 명절연휴의 개념

본 연구에서 명절은 연중 가장 큰 명절인 설과

추석으로 한정하였으며, 연휴는 각 명절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의 일정을 연휴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교통사고자료는 최근 4년간('07-'10년) 각 연도 연휴기간 자료로 설연휴기간(15일)과 추석연휴기간(14일) 자료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설연휴와 추석연휴 일정현황

(단위: 일)

연도별	설연휴		추석연휴		명절 휴일 수	평일 수
	기간	일수	기간	일수		
2007	2/17-19	3	9/22-26	5	8	357
2008	2/6~10	5	9/13-15	3	8	358
2009	1/24-27	4	10/2-04	3	7	358
2010	2/13-15	3	9/21-23	3	6	359
계	-	15	-	14	29	1,432

김종현 :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교육처, ko0428@ts2020.kr, 직장전화:031-362-3680, 직장팩스:031-362-3689

유진화 :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교육처, gina@ts2020.kr, 직장전화:031-362-3685, 직장팩스:031-362-3689

1)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는 2007년 자료부터 공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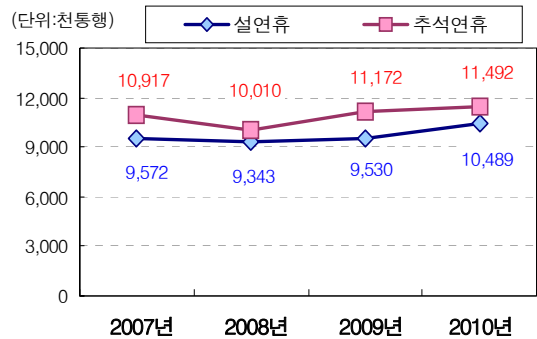
2. 설연휴와 추석연휴 기간 이동현황

최근 4년('07년-'10년)간 명절연휴 이동추이를 일평균 통행기준으로 보면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매년 설연휴와 추석연휴 통행은 계속 증가추세이다. 추석연휴 일평균 통행은 설연휴보다 7.1%~17.2% 더 많아 평균 12.0%(116만 통행) 더 증가하여 추석의 귀향·귀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참조).

최근 4년('07년-'10년)간 명절연휴 귀향·귀성시 이용한 수송수단별 평균값을 보면 승용차 이용이 8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시외·전세버스(12.6%), 고속버스(2.0%)로 도로교통이용이

95.4%이고, 도로교통의 이용이 4.6%로 귀향·귀성시 대부분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특히 승용차와 시외·전세·고속버스 이용률은 서로 상반되어 승용차가 증가하면 대중교통은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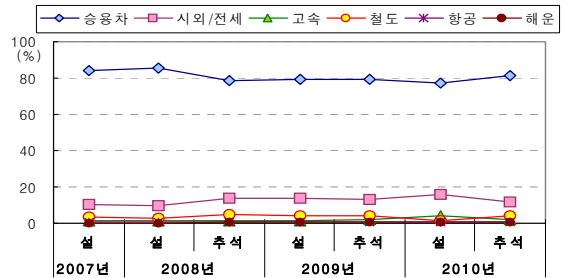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명절연휴 이동추이(일평균 통행기준)
(단위: 천통행)

연도별	명절	설연휴	추석연휴	설연휴 대비 추석연휴 증감률(%)
2007		9,572	10,917	114.1
2008		9,343	10,010	107.1
2009		9,530	11,172	117.2
2010		10,489	11,492	109.6
평균		9,734	10,898	112.0

자료: 1. 국토해양부(2010), "추석 연휴 4949만명 이동-작년 대비 2.9% 증가", 보도자료 9. 13일자
2. 한국교통연구원(2010), "귀성길 13일 오전, 귀경길 14일 오후 가장 혼잡", 보도자료 2. 4일자

〈그림 1〉 연도별 명절연휴 이동추이(일 평균 통행기준)



〈그림 2〉 연도별 이동 수송수단별 추이

〈표 3〉 연도별 이동 수송수단별 추이

(단위: %)

연도별	교통수단	도로교통 이용				도로교통외 이용			
		승용차	시외·전세	고속	소계	철도	항공	해운	소계
2007년*	설	84.0	10.6	1.4	96.0	3.3	0.4	0.3	4.0
	추석	78.6	13.5	1.6	93.7	5.1	0.5	0.6	6.2
2008년	설	85.3	9.7	1.3	96.3	3.0	0.4	0.3	3.7
	추석	79.6	13.1	1.9	94.6	4.3	0.5	0.6	5.4
2009년	설	79.2	14.0	1.7	94.9	4.0	0.5	0.5	5.0
	추석	79.6	13.1	1.9	94.6	4.3	0.5	0.6	5.4
2010년	설	77.3	15.7	4.4	97.4	1.7	0.5	0.4	2.6
	추석	81.1	11.8	1.8	94.7	4.1	0.7	0.6	5.4
평균		80.7	12.6	2.0	95.4	3.6	0.5	0.5	4.6

*) 2007년 추석 이동 수송수단별 자료 미비로 기재 안함

자료: 1. 건설교통부(2008), "2008년 설연휴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2. 국토부, 각년도 보도자료 : 2007년(2/9일자), 2009년(2/10일자), 2009년(9/25일자), 2010년(9/10일자)

3. 한국교통연구원, 각년도 KOTI-Brief : 2009년(제37호), 2010년(vol.2)

소하고 승용차가 감소하면 대중교통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3. 설연휴와 추석연휴의 교통사고현황 비교 분석

최근 4년간('07-'10년) 설연휴와 추석연휴의 교통사고를 평상시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일평균 발생건수는 평상시(610건)에 비해 설연휴(421건), 추석연휴(516건) 모두 각각 31.0%, 15.4% 낮다. 일평균 사상자수도 평상시(968명)에 비해 설연휴(850명)는 12.3% 낮으되 비해 추석연휴(1008명)에는 4.1% 높다. 또한 100건당 사상자수는

평상시(159명)에 비해 설연휴(202명)는 27.1%, 추석연휴(196명)는 23.1%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러한 이유는 명절연휴시 장거리 귀향·귀성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도시내 통행이 줄었으나 평소보다 많은 가족단위 인원이 탑승했기 때문에 사고건수에 비해 사상자수가 높아, 치사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년간('07-'10년) 설연휴와 추석연휴의 음주교통사고를 평상시와 비교하면 일평균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평상시(77건)에 비해 설연휴(64건)는 16.6% 적으나 추석연휴(83건)는 7.8% 많다. 일평균 사상자수도 평상시(141명)에

〈표 4〉 최근 4년간('07-'10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

구분		설연휴기간(15일)	추석연휴기간(14일)	평상시 기간(1432일) ¹⁾
발생건수(건)		6,308	7,219	872,825
사망자수(명)		192	199	22,988
부상자수(명)		12,545	13,907	1,362,749
사상자수(명)		12,737	7,418	1,385,737
1일 평균치	발생건수(건)	420.5 (69.0%)	515.6 (84.6%)	609.5 (100%)
	사망자수(명)	12.8 (79.5%)	14.2 (88.2%)	16.1 (100%)
	부상자수(명)	836.3 (87.9%)	993.4 (104.4%)	951.6 (100%)
	사상자수(명)	849.1 (87.7%)	1007.6 (104.1%)	967.7 (100%)
100건당 사망자수(치사율,명)		3.0 (115.4%)	2.8 (107.7%)	2.6 (100%)
100건당 사상자수(명)		201.9 (127.1%)	195.4 (123.1%)	158.8 (100%)

1)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표 5〉 최근 4년간('07-'10년)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비교

구분		설연휴기간(15일)	추석연휴기간(14일)	평상시 기간(1432일) ¹⁾
발생건수(건)		961	1,160	110,061
사망자수(명)		34	26	3,579
부상자수(명)		2,049	2,251	197,728
사상자수(명)		2,083	2,277	201,307
1일 평균치	발생건수(건)	64.1 (83.4%)	82.9 (107.8%)	76.9 (100%)
	사망자수(명)	2.3 (92.0%)	1.9 (76.0%)	2.5 (100%)
	부상자수(명)	136.6 (98.9%)	160.8 (116.4%)	138.1 (100%)
	사상자수(명)	138.9 (98.8%)	162.6 (115.7%)	140.6 (100%)
100건당 사망자수(치사율,명)		3.5 (106.1%)	2.2 (66.7%)	3.3 (100%)
100건당 사상자수(명)		216.8 (118.5%)	192.3 (105.1%)	182.9 (100%)

1)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비해 설연휴(139명)는 1.2% 낮는데 비해 추석연휴(163명)에는 15.7%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건당 사상자수는 평상시(183명)에 비해 설연휴(217명)는 18.5%, 추석연휴(192명)는 5.1%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특히 음주운전사고는 추석연휴의 일평균 발생건수(83건)가 설연휴(64건)보다 29.7% 높고, 일평균 사상자(163명)도 17.3% 높는데 반해 100건당 치사율(2.2명)은 37.1% 낮다.

즉 설연휴 일평균 음주사고는 평상시보다 발생건수와 사상자 모두 적으나 추석연휴에는 평상시보다 음주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더 높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고건당 사상자수도 전체 교통사고와 같이 평상시보다 명절연휴가 더 많은 이유는 설연휴 기간에는 폭설과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기상악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추석연휴와 똑같은 ‘음복’이라도 사고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과 추석연휴 1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적으나 건당 사상자수는 더 많고, 1일 평균 음주교통사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설연휴는 적으나 추석연휴는 더 많고, 건당 사상자수는 설연휴, 추석연휴 모두 높으며 더구나 설연휴 음주사고 치사율은 추석연휴보다 더 높아 설연휴의 음주사고의 심각성은 더 높다. 따라서 성묘나 차례를 지낸 후 마시는 ‘음복’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다.

4. 명절연휴와 평상시 교통사고항목 비교분석

최근 4년간(‘07-’10년) 명절기간 1일 평균 사고건수는 466.4건, 평상시는 609.5건이며, 설연휴와 추석연휴의 항목별 교통사고는 차이가 없어 설과 추석연휴를 합친 명절기간과 평상시 1일 평균 사고발생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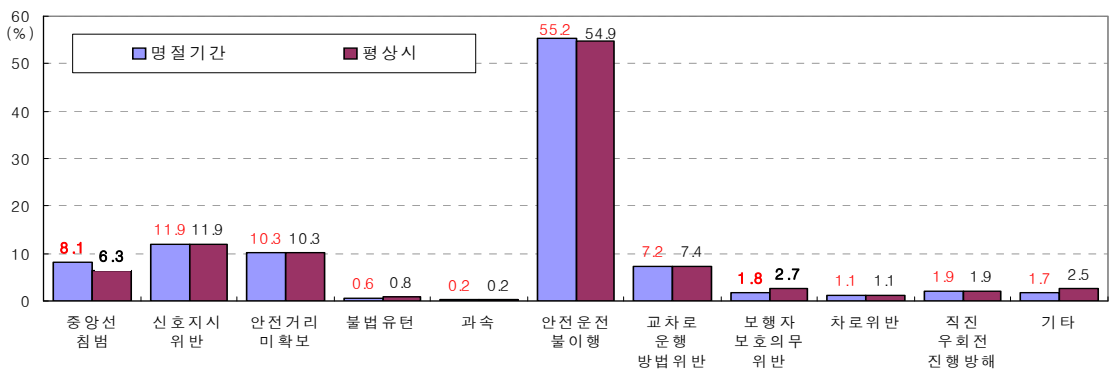
1)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비교

1일 평균 법규위반별 사고율은 평상시, 명절 모

〈표 6〉 최근 4년간(‘07-’10년) 명절(설+추석)기간과 평상시 법규위반별 발생건수 비교

법규위반별	명절기간 (29일) ¹⁾		평상시 기간 (1432일) ²⁾	
	건수	(%)	건수	(%)
중양선침범	37.6	8.1	38.6	6.3
신호지시위반	55.4	11.9	72.6	11.9
안전거리미확보	47.9	10.3	62.8	10.3
불법유턴	2.8	0.6	4.7	0.8
과속	1.2	0.2	1.2	0.2
안전운전불이행	257.4	55.2	334.3	54.9
교차로운행방법위반	33.7	7.2	44.9	7.4
보행자보호의무위반	8.4	1.8	16.6	2.7
차로위반	5.1	1.1	7.0	1.1
직진우회전 진행방해	9.1	1.9	11.9	1.9
기타	7.8	1.7	15.0	2.5
계	466.4	100.0	609.5	100.0

1) 최근 4년간 설연휴(15일)와 추석연휴(14일)를 합한 기간
 2)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그림 3〉 명절기간과 평상시 법규위반별 발생률 비교

두 안전운전불이행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신호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절기간에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평상시(6.3%)에 비해 1.8% 높아(8.1%) 이로 인해 차대차 사고는 평상시의 73.9%보다 2.4% 높은 76.3%가 발생했다(〈표 6〉, 〈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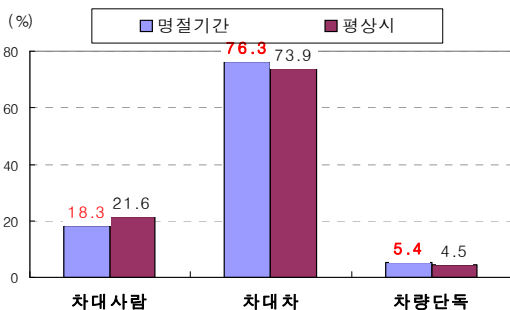
2)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비교

1일 평균 사고유형은 차대차 사고율이 명절기간(76.3%), 평상시(73.9%) 모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명절기간이 평상시 보다 다소 높고(2.4%), 차량단독 사고도 명절기간(5.4%)이 평상시(4.5%)보다 0.9% 더 높게 나타났다(〈표 7〉참조).

〈표 7〉 최근 4년간('07-'10년) 명절(설+추석)기간과 평상시 사고유형별 발생건수 비교

사고유형별	명절기간 (29일) ¹⁾		평상시 기간 (1432일) ²⁾		
	건수	(%)	건수	(%)	
1일 평균 치	차대사람	85.5	18.3	131.8	21.6
	차대차	355.6	76.3	450.7	73.9
	차량단독	25.3	5.4	27.1	4.5
	계	466.4	100.0	609.5	100.0

1) 최근 4년간 설연휴(15일)와 추석연휴(14일)를 포함한 기간
 2)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그림 4〉 명절기간과 평상시 사고유형별 발생률 비교

3)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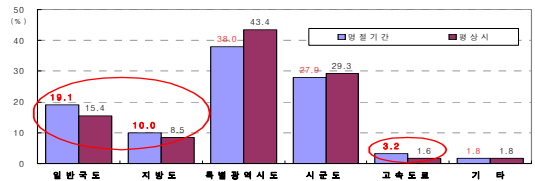
1일 평균 도로종류별 사고율은 명절기간, 평상

시 모두 특별광역시도와 시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기간 사고가 증가하는 도로는 일반국도(19.1%)와 지방도(10.0%)이며, 고속도로 사고는 평상시(1.6%)보다 2배 높게(3.2%) 나타났다(〈표 8〉, 〈그림 5〉참조).

〈표 8〉 최근 4년간('07-'10년) 명절(설+추석)기간과 평상시 도로종류별 발생건수 비교

도로종류별	명절기간 (29일) ¹⁾		평상시 기간 (1432일) ²⁾		
	건수	(%)	건수	(%)	
1일 평균 치	일반국도	89.0	19.1	93.7	15.4
	지방도	46.7	10.0	51.8	8.5
	특별광역시도	177.3	38.0	264.5	43.4
	시군도	130.2	27.9	178.4	29.3
	고속도로	14.8	3.2	10.1	1.6
	기 타	8.8	1.8	11.0	1.8
	계	466.4	100.0	609.5	100.0

1) 최근 4년간 설연휴(15일)와 추석연휴(14일)를 포함한 기간
 2)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그림 5〉 명절기간과 평상시 도로종류별 발생률 비교

4) 차종별 교통사고 비교

1일 평균 차종별 사고율은 명절기간, 평상시 모두 승용차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기간 승용차 사고(76.4%)는 평상시(67.0%) 보다 9.4% 높게 나타났다(〈표 9〉, 〈그림 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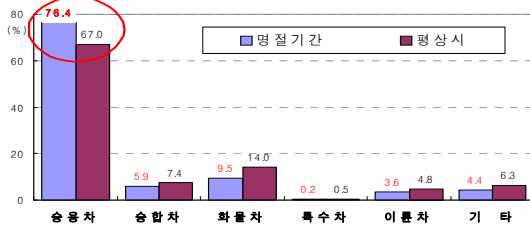
5) 면허경과년수별 교통사고 비교

1일 평균 면허경과년수별 사고율은 명절기간, 평상시 모두 10년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으나 명절기간에는 10년 미만의 운전자 사고(42.3%)가 평상시(38.7%) 보다 3.6% 높게 나타났다(〈표 10〉, 〈그림 7〉참조).

〈표 9〉 최근 4년간('07-'10년) 명절(설+추석)기간과 평상시 차종별 발생건수 비교

차종별	명절기간 (29일) ¹⁾		평상시 기간 (1432일) ²⁾	
	건수	(%)	건수	(%)
승용차	356.2	76.4	408.5	67.0
승합차	27.6	5.9	45.1	7.4
화물차	44.4	9.5	85.4	14.0
특수차	1.0	0.2	3.0	0.5
이륜차	16.7	3.6	29.0	4.8
기 타	20.6	4.4	38.5	6.3
계	466.4	95.6	609.5	93.7

1) 최근 4년간 설연휴(15일)와 추석연휴(14일)를 합한 기간
 2)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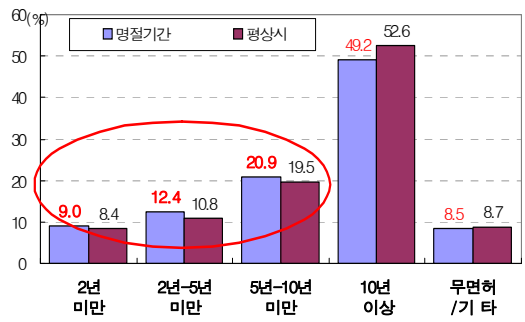


〈그림 6〉 명절기간과 평상시 차종별 발생률 비교

〈표 10〉 최근 4년간('07-'10년) 명절(설+추석)기간과 평상시 면허경과년수별 발생건수 비교

면허경과년수별	명절기간 (29일) ¹⁾		평상시 기간 (1432일) ²⁾	
	건수	(%)	건수	(%)
2년미만	81.0	9.0	51.2	8.4
2년-5년미만	111.4	12.4	66.1	10.8
5년-10년미만	188.5	20.9	118.9	19.5
10년이상	443.8	49.2	320.4	52.6
무면허/기타	77.1	8.5	53.0	8.7
계	466.4	91.5	609.5	91.3

1) 최근 4년간 설연휴(15일)와 추석연휴(14일)를 합한 기간
 2)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그림 7〉 명절기간과 평상시 면허경과년수별 발생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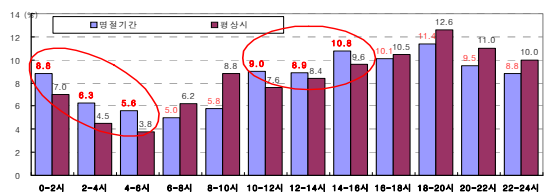
6) 시간대별 교통사고 비교

1일 평균 사고시간대별 사고율은 평상시에는 18-20시(12.6%)와 20-22시(11.0%)로 주로 퇴근 이후 시간에 발생한 반면 명절기간은 18-20시

〈표 11〉 최근4년간('07-'10년)명절(설+추석)기간과 평상시 사고시간대별 발생건수 비교

사고 시간대별	명절기간 (29일) ¹⁾		평상시 기간 (1432일) ²⁾	
	건수	(%)	건수	(%)
0-2시	41.1	8.8	42.9	7.0
2-4시	29.5	6.3	27.2	4.5
4-6시	26.3	5.6	23.3	3.8
6-8시	23.2	5.0	37.8	6.2
8-10시	27.2	5.8	53.7	8.8
10-12시	42.0	9.0	46.6	7.6
12-14시	41.3	8.9	50.8	8.4
14-16시	50.3	10.8	58.4	9.6
16-18시	47.2	10.1	63.9	10.5
18-20시	53.0	11.4	77.0	12.6
20-22시	44.1	9.5	67.1	11.0
22-24시	41.1	8.8	60.8	10.0
계	466.4	100.0	609.5	90

1) 최근 4년간 설연휴(15일)와 추석연휴(14일)를 합한 기간
 2)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그림 8〉 명절기간과 평상시 사고시간대 발생률 비교

〈표 12〉 최근 4년간('07-'10년) 명절(설+추석)기간과 평상시 시간대별 범규위반별 비교 (단위:%)

범규위반별	시간대	명절기간(29일)1)				평상시 기간(1432일)2)			
		0-6시	6-10시	10-16시	16-24시	0-6시	6-10시	10-16시	16-24시
중앙선침범		6.5	9.4	9.0	7.8	6.0	6.7	6.1	6.4
신호지시위반		14.8	14.7	8.8	11.8	15.1	13.9	10.2	11.1
안전거리미확보		8.3	9.3	13.1	9.6	9.6	10.9	11.0	9.9
불법유턴		0.7	0.6	0.6	0.5	0.8	0.6	0.9	0.8
과속		0.5	0.1	0.1	0.2	0.4	0.2	0.2	0.1
안전운전불이행		58.6	54.1	52.7	55.5	58.0	50.7	53.0	56.2
교차로운행방법위반		4.8	7.4	8.9	7.2	5.1	8.6	8.9	6.8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	0.4	1.5	2.6	1.4	2.7	2.9	3.1
차로위반		1.2	0.8	1.0	1.2	1.1	1.1	1.2	1.1
직진우회전 진행방해		1.8	1.8	2.2	1.9	1.2	2.3	2.5	1.8
기타		1.2	1.4	2.0	1.7	1.3	2.3	3.1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최근 4년간 설연휴(15일)와 추석연휴(14일)를 합한 기간

2) 최근 4년간 설연휴와 추석연휴(29일) 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 경찰청 DB자료

(11.4%), 14-16시(10.8%), 16-18시(10.1%) 순으로 오후시간에 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명절 기간 사고는 심야시간(0-6시) 사고발생률(20.7%)이 평상시(15.3%)에 비해 5.4% 높다. 또한 지인들을 찾아 이동하는 주간시간(10-16시)의 사고율(28.7%)도 평상시(25.6%)에 비해 3.1% 높았다(〈표 11〉, 〈그림 8〉참조).

또한 시간대별 범규위반을 살펴보면 명절기간 심야시간(0-6시)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와 안전운전불이행과 사고, 직진우회전 진행방해가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주간시간(10-16시)에는 안전거리미확보, 중앙선 침범사고가 높게 발생했다(〈표 12〉참조).

따라서 일반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향·귀성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 침범 사고와 차대차 사고, 차량단독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을 절대 삼가야 하며, 특히 심야시간(0-6시)과 지인들을 찾아 이동하는 주간시간(10시-16시)의 운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III. 결론

최근 4년간('07-'10년) 명절기간 교통사고를

평상시와 비교한 결과 일평균 발생건수는 평상시(610건)에 비해 설연휴(421건), 추석연휴(516건) 모두 각각 31.0%, 15.4% 낮다. 그러나 100건당 사상자수는 평상시(159명)에 비해 설연휴(202명)는 27.1%, 추석연휴(196명)는 23.1% 높다. 따라서 사고심각성을 나타내는 100건당 사상자수와 사망자수는 평상시보다 명절연휴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일 평균 음주운전사고는 평상시(77건)보다 설연휴(64건)는 적으나 추석연휴(83건)에는 높고, 100건당 사상자수는 평상시(183명)보다 설연휴(217명), 추석연휴(192명) 모두 높아 성묘나 차례 후 마시는 '음복'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설연휴에는 추석연휴보다 사고건수는 적으나 건당 사상자는 더 많아 기후가 좋지 않은 설연휴에는 운전자가 음주에 더 신경을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명절연휴 이동수단에서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면 시외·전세·고속버스 이용은 증가하는 서로 상반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명절연휴 교통편은 대부분 도로교통수단(95.4%)으로 그 중 승용차 이용이 평균 80.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Door-to-Door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절기간에는 가족동반으로 인한 대형사고위험과 음주사고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절기간은 술자리가 빈번하더라도 본인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귀향·귀성전에는 가벼운 술자리라도 음주는 절대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2007),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보도자료 2. 9일자.
2. 건설교통부(2008), “2008년 설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3. 국토해양부(2008), “추석절 특별교통대책”, 보도자료 9. 3일자.
4. 국토해양부(2009), “귀성길 2일 오전, 귀경길 3일 오후 가장 혼잡”, 보도자료 9. 25일자.
5. 국토해양부(2009), “귀성길 25일 오전, 귀경길 26일 오후 가장 혼잡”, 보도자료 2. 10일자.
6. 국토해양부(2010), “추석 연휴 4949만명 이동-작년대비 2.9% 증가”, 보도자료 9. 13일자.
7. 도로교통공단(<http://www.rtsa.or.kr>), 사고통계(2007~2010).
8. 한국교통연구원(2009), “09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전망과 정책제안”, KOTI-Brief, 제37호.
9. 한국교통연구원(2010), “귀성길 13일 오전, 귀경길 14일 오후 가장 혼잡”, 보도자료 2. 4일자.
10. 한국교통연구원(2010), “10년 추석연휴 특별교통 통행실태조사”, KOTI-Brief, vol.2 제18호.